시스코, 분기 순익 40% 급증

세계 최대 네트워크 장비업체인 시스코시스템스가 지난 2분기(10~12월)에 업그레이드 수요 증가로 40%의 순익 증가를 기록했다.

시스코는 2월 7일 2분기 순익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한 19억2,000만달러(약 1조 7,9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주당 이익은 33센트를 기록해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31센트를 넘어섰다.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85억7,000만달러(약 7조9,900억원)로 전망치인 82억8,000만달러를 웃돌았다.

존 체임버스 시스코 최고경영자는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19~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MS, 기업 명성지수 세계 1위

세계에서 가장 명성이 높은 기업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꼽혔다.

월스트리트저널-해리스 인터랙티브 '기업 명성지수'에 따르면 MS는 지도력과 실적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지난 조사에서 7위에 그쳤던 MS가 1위로 등극한 데는 회장인 빌 게이츠와 부인 멜린다의 활발한 자선활동이 일조한 것으로 WSJ는 분석했다. MS는 또 이번 조사에서 순위가 가장 많이 올라간 기업으로도 뽑혔다.

8회 째인 기업 명성지수에서 지난 7년 간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던 존슨 앤 존슨(J&J)은 MS에 밀려 2위에 그쳤다. 3위는 지난 조사에서 5위였던 3M이, 이어 구글과 코카콜라가 뒤를 이었다.

반면 이라크 군납비리 의혹 등을 받았던 핼리버튼은 최하위인 60위에 랭크됐으며 엑손 모빌과 컴캐스트 · 제너럴모터스(GM) · 알트리아그룹 등이 최하위권을 형성했다. 국내 기업은 60위 내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9%가 미국 재계 명성에 대해 '좋지 않다' 또는 '형편없다'고 응답해 전반적인 인식이 부정적이라는 점을 확인시켜 줬다.

중국서 12만원짜리 데스크톱PC 등장

중국에 가격이 998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만원에 불과한 데스크톱PC가 출시됐다.

IDG뉴스서비스 · 홍콩 경제일보에 따르면 중국 PC 업체인 리모트테크놀로지는 농촌 시장을 겨냥해 998위안짜리 테스트톱PC '룽언농촌샤오캉'을 전격 시판했다.

지난달 신화통신은 리모트 측 관계자의 말을 인용, 신제품이 1,599위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지만 실제 판매 가격은 더 낮아졌다.

이 PC는 중국 정부의 지원 하에 개발된 '룽신(龍芯) Ⅱ E' CPU와 리눅스를 운용체계(OS)로 사용해 가격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이다. 농촌 정보화를 위해 고안된 저가형 제품이지만 중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한 CPU가 상용 PC에 탑재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리모트테크놀로지 측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농민의 실제 수요에 맞게 설계했다"면서 "농촌의 소비 잠재력을 보고 외국계 PC업체들이 들어오기 전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이 제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이통업체 어린이 보호 강령 채택 합의

유럽의 주요 이동통신 업체들이 어린이들의 모바일 성인물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어린이 보호 강령을 자발적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월 7일 밝혔다.

영국 보다폰, 독일 도이치텔레콤, 프랑스 오렌지 그룹 등 15개 이통업체들은 어린이들이 모바일을 통해 음란 · 폭력 등 성인물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광고물의 윤리등급을 매기는 등 자체 안전규정을 만들어 내년 2월까지 이행키로 합의했다고 EU 집행위는 전했다.

EU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5년을 기준으로 역내 12~13세 어린이의 70%, 8~9세의 23%가 휴대폰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어린이들은 휴대폰의 인터넷 접속 기능을 통해 게임과 음악 · 비디오를 내려받고 있다.

비비안 레딩 EU 정보사회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합의는 어린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며 "집행위는 오늘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 지를 면밀히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JVC, HD DVD 동영상 5시간 문제 없다

JVC는 풀 HD급 1,920x1,080화소를 구현한 디지털 캠코더 '이베리오 GZ-HD7

을 2월 7일 선보였다. 이 정도로 풀 HD급 동영상을 지원하는 캠코더는 세계 최초라는 것이 JVC의 주장. 이 제품은 57만화소 CCD 3개와 60Gb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내장돼 있으며 최대 5시간까지 HD DVD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브리티시텔레콤, 인도 i2엔터프라이즈 인수

영국 최대 통신업체인 브리티시텔레콤(BT)이 인도의 i2엔터프라이즈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2월 7일 발표했다.

i2i엔터프라이즈는 주요 인도 및 다국적 기업에 IP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로 뭄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직원 수는 약 200명이다. 그 동안 BT 인포넷의 매지니드 네트워크 서비스 및 제품을 인도에 판매해 왔다.

앤디 그린 BT 글로벌 서비스 CEO는 "인도는 IT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핵심 기지"라고 인수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BT는 이번 인수로 인도 내 약 6개 도시에서 입지를 구축하게 됐다"며 "이 사업은 연간 100% 이상 고속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BT는 지난 2년 동안 INS · 카운터페인 · 인포넷 · 래디언즈(미국) · 알바콤(이탈리아) · 텔렉시스폴스카(폴란드) 등 15개 기업을 인수했다.

구글은 지난 4분기 10억3,000만달러 순익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인 구글은 지난 4분기 10억3000만달러의 순익을 거뒀다고 2월 1일 밝혔다.

이는 2005년 4분기(3억7200만달러) 실적보다 세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광고 사업이 실적 호조를 이끌었다. 구글에 따르면 자체 사이트 광고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80%가 늘어난 19억8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애드센스를 통한 파트너 광고 매출은 50%가 증가한 1억2000만달러에 달했다.

구글은 미국뿐 아니라 유럽 · 프랑스 · 독일 · 영국 등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면서 광고를 끌어모으는 것으로 분석됐다.

웹 분석 업체인 콤스코어 네트웍스에 따르면 미국 내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4분기 47%로 전년 동기 대비 7%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경쟁사인 야후 · MS는 같은 기간 각각 1%, 3%포인트가 떨어졌다. 또 구글은 프랑스 · 독일 · 영국 검색엔진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며 해외 매출 비중도 기존 38%에서 44%로 늘렸다.

에릭 슈미트 구글 CEO는 "지난 한해, 지난 분기가 모두 놀라운 시간이었다"면서 "구글의 비즈니스는 아주 탄탄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글의 이 같은 실적에도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구글의 주가 움직임은 크지 않았다.

소니, 아이픽스 특허 360만달러에 인수

소니가 미국 이미징기술업체 '아이픽스(Ipix)' 지식재산을 법원 경매를 통해 360만달러에 낙찰받았다고 C넷이 보도했다.

아이픽스는 2개 디지털 이미지를 360도 파노라마 이미지로 만드는 기술로 유명하며, NASA와 미 에너지부에서도 자금 지원을 받았다.

이 기술은 인터넷에서 원격으로 주택이나 건물 등의 내부를 보여줄 때 유용해 부동산 업계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번에 낙찰된 아이픽스의 지식재산에는 미국 국내 특허 35개 이상, 스틸 사진과 360도 디지털 비디오 기술 관련 특허 애플리케이션, 기가픽셀급 해상도를 갖춘 카메라 관련 기술 등이 포함됐다. 또 호주 · 오스트리아 · 캐나다 · 독일 · 유럽연합(EU) · 일본에서 등록한 비슷한 특허 및 특허 애플리케이션 50개 이상도 포함됐다.

나스닥 상장업체였던 아이픽스는 지난해 7월 31일 버지니아주 동부지구 파산법원에 기업청산을 신청, 자산 경매 과정을 밟아왔다.

유럽이통업체들, 모바일검색엔진 구글 대항마 만든다

세계 최대 이동통신업체 보다폰을 비롯한 유럽 주요 이통사업자들이 구글에 맞서는 새로운 모바일 검색 엔진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 텔레그라프와 AFP에 따르면 영국 보다폰, 프랑스 텔레콤, 스페인 텔레포니카, 독일 도이치텔레콤, 홍콩 허치슨 왐포아, 텔레콤 이탈리아와 미국업체로는 유일하게 싱귤러가 다음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3GSM 월드 콩그레스' 회담에서 공동으로 모바일 검색 엔진을 개발하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를 주도하는 보다폰은 구글 · 야후와 제휴를 맺고 이미 모바일 검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밖에 T모바일 · 허치슨3 · 차이나모바일 등 세계 각국 이통사업자들이 구글 또는 야후와 손잡고 휴대폰에 인터넷 검색 링크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들 업체는 자체 검색엔진을 개발함으로써 구글 등 기존 검색업체들을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